



##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

- 1910~20년대 초 국내독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이성우\*

1. 머리말
2.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 조직
3. 1920년대 초 국내독립운동단체 조직
4. 맺음말

### 요약

본 논문은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을 1910~20년대 초 국내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경북지역은 안동 의진을 비롯해 신돌석의진과 산남의진 등 한말 의병전쟁의 대표적 의병들이 활동한 지역이다. 1910년 한일강제 병합 후 의병참여자들은 국내 비밀단체에 참여했으며,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경력은 국내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경북 지역이다.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는 의병과 계몽운동계열로 나뉘어져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풍기광복단·민단조합은 의병계열의 단체였고,

\* 李成雨, 충남대학교

광복회는 의병과 계몽운동계열이 통합되어 조직된 단체였다.

독립의군부를 제외하면 이들 단체들은 모두 경북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이 경북지역에서 조직되는 것은 경북지역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광복회도 왕산 허위의 제자인 박상진과 산남의진과 진보의진에 참여한 우재룡과 권영만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광복회를 조직한 배경은 경북지역에서 전개한 의병전쟁과 허위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경북지역 의병전쟁은 1920년대 초 주비단과 조선독립후원의용단으로 계승되어 항일투쟁을 이어가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경북지역 의병전쟁은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1920년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가교架橋역할을 담당했다.

주제어

: 독립의군부, 민단조합, 풍기광복단, 광복회, 주비단, 조선독립후원의용단

## 1. 머리말

한말 의병전쟁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무력으로 항쟁한 민족운동이었다. 의병전쟁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항전이었고, 의병전쟁을 계승한 독립전쟁은 독립운동의 방략이었다. 경북지역은 안동·예안·예천·봉화·영주·의상·청송·영양·영해·영덕·영천·경주·포항·김천·선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의병들이 봉기했다. 경북지역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출발인 안동의진(安東義陣)을 비롯해 신돌석의진(申堧石義陣)과 산남의진(山南義陣) 등 한말 의병전쟁의 대표적 의병들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경북지역 의병연구는 안동의진·신돌석의진·산남의진·김산의진·예천회맹 등 의진연구와 신돌석(申堧石)·이강년(李康年)·허위(許葦)·김도화(金道和)·김도현(金道鉉)·김흥락(金興洛) 등 의병장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연구서·자료집·대중서 등의 발간을 통해 경북지역 의병전쟁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1</sup>

이처럼 경북지역 의병전쟁 연구는 의진·인물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단일의진이나 단일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연구와 시기별 의병의 성향과 인식에 대한 변화와 관련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sup>2</sup> 이와 아울러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국권회복운동기 계몽운동으로 전환하거나 국외로 망명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을사늑약이나 한일강제병합에 저항해 자결 순국한 이들도 많다. 이처럼 의병참여자들은 의병전쟁에 참여한 후 다양한 형태로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따라서 의병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한말의병의 대표적 인물과 의진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 참여 후 행적이 밝혀진다면 경북지역 의병전쟁뿐만 아니라 한말의병 연구에 기여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다.<sup>3</sup> 이를 통해 허위(許爲)·여중용(呂中龍)·여영조(呂永祚)·이병구(李炳九) 등의 배일언론투쟁, 여영조·여중룡·이병구·이상룡(李相龍)·유인식(柳寅植)·김도화(金道鉉) 등의 계몽운동, 김순흠(金舜欽)·이만도(李晩燾)·이중언(李中彦)·김택진(金澤鎭)·김도현(金道鉉) 등의 자결순국, 이상룡

1 경북지역 의병전쟁 연구 성과는 김희곤 논문, 「경북지역 의병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북유림과 독립운동』(경인문화사, 2015) 참조.

2 김희곤, 위의 논문, 122~123쪽.

3 권대웅, 「한말·일제강점 초기 의병계열의 민족운동」, 『한말 경북지역 의병사 연구』(안동독립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2009).

류인식·허겸 등의 국외독립운동이 밝혀졌다.<sup>4</sup> 이상룡·류인식이만도·김도현·이중언 등의 인물연구에서도 의병전쟁 참여 후 활동이 밝혀지기도 했다.<sup>5</sup> 이들 연구들은 계몽운동과 자결순국, 국외독립운동 등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참여 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 후 국내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국내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던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행적을 1910~20년대 초 국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의병참여자들은 국내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다. 또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경력은 국내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경북지역이다. 경북지역은 의병전쟁과 국내독립운동단체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국외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며 독립전쟁을 실현하고자했다. 그런데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는 의병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뉘어져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풍기광복단·민단조합은 의병계열의 단체였고, 광복회는 의병

4 권대용, 위의 논문, 8~24쪽.

5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희곤, 『경북유림과 독립운동』(경인문화사, 2015);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지식산업사, 2007);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IV(경상북도, 2012).

6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는 경북출신이 아니라 경북지역에서 봉기한 의병에 참여한 이들을 말한다. 경북출신으로 타 지역 의병에 참여한 이들은 제외하였으며, 타 지역 출신이나 경북지역 의병에 참여한 이들은 포함하였다. 시기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초 독립운동단체로 한정하였다.

과 계몽운동계열이 통합되어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를 제외하면 의병계열의 단체는 경북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이 경북지역에서 조직된 것은 경북지역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김산의진이강년의진산남의진 등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왕산 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행적을 통해 경북지역 의병전쟁과 191020년대 국내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 조직

### 1)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는 1910년대 대표적인 의병계열의 독립운동단체이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9월, 서울에서 곽한일(郭漢一)·이식(李弼)과 같은 재야유생과 이명상(李明翔)·이인순(李寅淳)·정노용(李鼎魯)·이승욱(李承旭)·전용규(田鎔圭)와 같은 전직 관료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는 조직된 후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 이승열(李承烈)·윤상보(尹尙普)·임병찬(林炳贊)을 ‘순무대장(巡撫大將)’에 임명하고 부원(府員) 확보에 주력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경기·충청·전라도에서 다수의 부원들이 확보되었다. 독립의군부는 열국(列國)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쟁취’한다는 외교론적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독립의군부의 장서투서운동은 이러한 방법의 한 가지 방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병(擧兵)’이었다. 독립의군부는 전직관료와 의병계열의 재야유생들이 조직한 단체

였다. 따라서 독립의군부의 목적은 ‘복국(復國)’이었고, 복국의 방법으로 ‘의병봉기’를 추진했다. 독립의군부가 거병을 추진하며 의병진을 ‘독립의군(獨立義軍)’이라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sup>7</sup>

독립의군부는 1912년 서울에서 조직된 후 의병참여자들에게 사령서(辭令書)를 전달해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경북지역에서는 최옥영(崔旭永)이 사령서를 받았다. 최옥영은 문경 출신으로 1907년 민공호(閔靑鎬) 의병에 참여해 제천·단양·영월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군자장(君資將)을 맡았고, 1908년 청풍 작성전투(靑城戰)에 참여했다. 최옥영은 작성전투에서 이강년이 체포되자 이명선(李明先)·이동하(李東下) 등과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sup>8</sup> 최옥영이 독립의군부로부터 칙명을 받은 것은 1913년 3월(음)이었으며, 당시 경북 문경에 거주하고 있었다.<sup>9</sup> 독립의군부는 삼남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고, 경상도 지역은 최옥영에게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최옥영은 사령서를 받은 후 강원도 강릉·원주, 경북 안동·예안, 충북 제천일대에서 동지들을 규합했다.<sup>10</sup> 1914년 12월에는 강순필(姜順必)(이명; 강병수(姜秉秀)·강순필(姜順弼))·이식재(李湜宰)·안교봉(安敎奉)·염석룡(廉石龍) 등과 충북 제천의 근북면사무소를 공격해 자금을

7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성우 논문(「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역사학회, 2014)) 참조.

8 權大雄, 「日帝下 抗日獨立運動單體 「民團組合」」, 『한국학보』 74(일지사, 1994), 102쪽.

9 「金在性판결문」(고등법원, 1915년 11월 4일).

10 「崔旭永安敎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暴徒李康年の 君師將」,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당시 최옥영은 柳承晩·李中和·趙監役·金秉淵·李仁和·이중호·廉石龍·安敎奉 등 17여 명을 동지로 규합했다.

탈취하기도 했다.<sup>11</sup> 이들 중 이식재는 문경출신으로 이강년의 조카였고, 강순필은 문경출신으로 전투 중에도 이강년의 곁은 떠나지 않았던 참모였다.<sup>12</sup> 이밖에도 문경출신의 김낙문도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sup>13</sup> 김낙문은 1908년 단식 순국한 김순흠(金舜欽)의 아들로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단양충주청주전투에 참여했다.<sup>14</sup>

이처럼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가 조직되는 배경에는 이강년의진이 있었다. 그런데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이들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곽한일이식 등과 학연지연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이들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하는 계기는 경북 선산 출신의 왕산(旺山) 허위(許爲)의 의병활동과 관계가 있었다. 허위는 1896년 김산의진(金山義陣)에 참여한 후 1907년 13도창의군에 참여했는데, 그와 함께 의병전쟁을 벌였던 이들 다수가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김산의진은 1896년 2월 11일(음) 이기찬(李基燦)·이기하(李起夏)·여영조(呂永祚)·여중룡(呂中龍) 등이 경북 상주 선산 김산개령지례 등지의 유생들과 봉기한 의병이다.<sup>15</sup> 허위는 김산의진에 참여했고, 그와 함께 참모를 역임한 여영조는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sup>16</sup> 독립의군부와 허위와의 관계는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정철화(鄭哲和)·이기

11 「暴徒李康年の 軍師長」,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최옥영·안교봉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12 『雲南先生倡義日錄』(『독립운동사자료집』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252-272-299쪽.

13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みず書房, 1977), 52쪽.

14 권대용, 앞의 논문, 1994, 103쪽.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246쪽.

16 류시중·박병환·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선인, 2010), 336쪽.

상李起尙이기영李起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기상은 1907년 허위가 경기도 연천에서 봉기할 때 허위의 비서였으며, 정철화는 허위의 부하였다.<sup>17</sup> 이기영은 허위의 사위였으며 이기상의 아우였다. 이들 형제가 허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기찬이기하가 1896년 허위와 함께 김산의진에 참여하면서 비롯되었다.<sup>18</sup>

이처럼 독립의군부에는 허위와 관련된 이들이 많았다. 허위는 1908년 피체되어 사형 순국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의병전쟁을 벌인 이들은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특히 허위의 비서로 13도창의군에 참여한 이기상이 주목된다. 이기상은 13도창의군이 실패한 후 충남 청양에서 이용규李容圭와 의병을 일으켰다.<sup>19</sup> 이용규는 곽한일과 홍주의병에 참여했으며, 1916년 7월(음) 이만식李晩植·조종국趙鍾國·전용규田鎔圭·이내수李來修 등과 함께 충남 연산에서 의병봉기를 추진했다.<sup>20</sup> 따라서 이기상은 홍주의병에 참여한 곽한일이삭이용규와 관계가 깊었고, 이들이 주도해 결성한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의군부에는 이인영李麟榮 의병장의 동생인 이은영李殷榮, 이인영 의진의 우군

17 류시중박병완김희곤 역주, 위의 책, 336쪽. 이밖에도 허위의 아들인 許衡도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류시중박병완김희곤 역주, 위의 책, 337쪽).

18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4~85쪽. 이기상과 이기영이 김산의진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상이기영의 만형인 李基夏하는 종형인 李基燦과 함께 1896년 2월 8일 경북 甘川에 머물고 있던 허위를 찾아가 거의를 논의했고(李基燦, 『倡義日記』, 『止山遺稿』(필사본)) 김산의진에 규관으로 참여했다. 허위는 김산의진에서 참모로 활동했다. 따라서 이기상이기영 형제도 이기하와의 관계로 허위와 인연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19 『義士 李容圭傳』(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1971), 342쪽).

20 『의사 이용규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47~349쪽)



장 김창식(金昌植), 후군장을 역임한 채상준(蔡相俊) 등이 참여했다.<sup>21</sup> 이들의 독립의군부 참여도는 13도창의군에서 함께 활동한 이기상과의 관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 2) 민단조합

민단조합은 1914년 9월 이동하(李東下)·이은영(李殷榮)·김낙문(金落文)·이식재(李湜宰) 등이 조직한 비밀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동하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을미의병 당시 이강년의 문경의진에 종사(從事)로 참여했고, 1907년 이강년이 다시 봉기했을 때 참모(參謀)와 군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강년의진이 실패한 후 최옥영·이명선 등과 재기를 도모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12년 7월에는 노병직 등과 자금모집을 위해 상주를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10월에는 노병직(盧炳稷)·구동식(具東植)·손일현(孫日鉉)·강봉주(姜奉周)·김정오(金正五) 등과 경북 선산에서 자금모집을 벌였다. 그러나 자금모집은 실패했고, 이동하는 음력 12월 권병철(權炳哲)·조용팔( 조용팔)·김성추(金聲秋) 등과 만주로 망명했다가 1914년 9월 귀국해 민단조합을 결성했다고 한다.<sup>22</sup>

그러나 민단조합은 조직시기와 성격과 관련해 몇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다. 먼저 조직시기이다. 민단조합은 1914년 9월에 조직되었고 보기 어렵다. 민단조합이 1914년 9월에 조직되었다는 견해는 이동하가 만주로

21 류시중·박병완·김희곤 역주, 앞의 책, 336쪽; 홍영기, 『한말후기의병』(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9쪽; 「金昌植·韓元泰·李起商判결문」(1908년 6월 6일, 평리원).

22 권대용, 앞의 논문, 1994, 101~102쪽; 권대용, 앞의 책, 2008, 92쪽.

서 국내로 돌아온 시점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하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민단조합은 1915년 조직되었다.<sup>23</sup> 그러나 조직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던 이식재는 1915년 8월에 민단조합에 참여했고,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최옥영은 1915년 4월에 피체되었다.<sup>24</sup> 또한 이동하는 19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고 한다.<sup>25</sup> 이를 통해 보면 민단조합은 1915년 8·9월경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민단조합의 성격이다. 민단조합에 참여한 이동하이은영·김낙문·이식재는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별개의 단체로 민단조합을 조직했다. 따라서 민단조합과 독립의군부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립의군부의 주요 자료 중 하나는 임병찬의 문집인 『돈헌유고 遯軒遺稿』에 수록된 「관견 管見」이다.<sup>26</sup> 그런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민단조합의 직인이 찍혀 있는 「관견」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관견의 작성일시는 1914년 2월이다. 그렇다면 민단조합은 1914년 2월 이전에 조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 「관견」은 독립의군부에서 작성한 「관견」을 필사한 후 민단조합의 직인을 찍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이인영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인영은 1914년 3월 이기상 李起商·이기영 李起永·정철화 鄭哲和 등과 함께 서울에서 독립의군

23 강덕상 편, 앞의 책, 52쪽.

24 강덕상 편, 위의 책, 52쪽.

25 「李東下판결문」(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918년 5월 30일).

26 「管見」(임병찬, 『돈헌유고』 권4, 管見).

부 총대표總代表 및 각군대표各郡代表를 선정하는 모임에 참석했다.<sup>27</sup> 당시 모임은 곽한일임병찬 등 독립의군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한 대표자적 성격의 회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이들은 서울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관견」은 독립의군부에서 작성한 「관견」을 이후 필사했거나 이미 배포된 「관견」에 민단조합의 직인을 찍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규장각 소장 「관견」은 민단조합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관견」에는 독립의군부의 운동노선과 관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민단조합이 「관견」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의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이동하가 민단조합을 조직한 후의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이동하는 1915년 12월 권영직權寧直을 밀양에 파견해 박인근朴仁根·김강년金康年·유영봉柳永奉을 고종의 칙명勅命을 빌어 서울로 오게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의군부정위義軍府正尉·의군부참위義軍府參尉·의군부참령義軍府參領에 임명한다는 사령장을 교부한 후 자금제공을 약속받았다.<sup>28</sup> 그런데 당시 이동하가 교부한 사령장의 관계는 독립의군부 「관견」의 관계였다. 독립의군부는 1913년 1월 「정헌定憲」을 제정해 독립의군부 관제를 마련했다. 「정헌」에 의하면 독립의군부는 ‘(원수부元帥府：필자주)에 총무總務·참모參謀·회계會計·사법司法·군

27 임병찬, 「學義日記」(『돈헌유고』 권6, 日記). 임병찬은 郭漢一·李明翔·李寅順·蔡相德(1914년 2월 25일), 姜奉周·李圭弘·李起商·李起英(李起永; 필자주)·李殷榮·李鍾默·李重元·邊烜·宋柱煥·安泰俊·尹炳日·鄭哲化(鄭哲和; 필자주)·曹在學(3월 10일) 등과 협의한 후 3월 23일 독립의군부 총대표 및 각군대표를 선정했다.

28 권대웅, 앞의 논문, 1994, 108쪽; 강덕상 편, 앞의 책, 52쪽.

무軍務 등 오총장五總長을 두고 그 아래에는 각 총관總管·서기관書記官·종사관從事官을 두며 경략원經略院에는 경략사經略使, 초토영招討營에 초토사招討使 등을 두는 체제였다. 그러나 1914년 2월 이후 관직과 군직을 나누고, 군직은 육군부장·참장·참령·정위·참위·정교·부교·참교로 편제했다.<sup>29</sup> 이동하는 이은영이 독립의군부 총대표 및 각군대표 선정 모임 이후에 시행된 독립의군부 관제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동하는 ‘의군부義軍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립의군부와 같이 칙명의 형식으로 사령서를 교부하고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보면 이동하는 귀국한 후 독립의군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단조합은 1913년 3월(음) 조직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sup>30</sup>

### 3) 풍기광복단

풍기광복단은 1913년 1월(음) 경북 풍기에서 조직된 비밀단체이다. 풍기광복단은 경북과 충청도 지역의 인물들이 주축이었다. 특히 이강년의진·홍주의병 등 한말 의병전쟁에 참여했다가 생활근거를 잃은 의병적 성향의 인물들이 중심이었다.<sup>31</sup> 풍기광복단은 채기중이 중심이

29 이성우, 앞의 논문, 175~176쪽.

30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과의 관계는 추후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31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262~264쪽; 양한위, 「양벽도공제안실기」.

되어 조직되었다. 채기중은 1873년 7월 경북 함창에서 태어났다. 채기중이 태어난 함창은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고, 의병전쟁 때까지 전란이 거듭되던 곳이었다. 또한 일제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던 고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채기중은 1906년에 풍기로 이주하였다. 채기중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풍기로 이주한 이후부터였다. 풍기는 『정감록』에 십승지地十勝之地로 알려진 곳으로 전국에서 많은 이주민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이주민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지사들에게는 은거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채기중은 이곳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규합해 광복단을 조직했다. 풍기광복단은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석광에 광부로 잠입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부호들을 대상으로 자금 모집을 벌이기도 했다.<sup>32</sup>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로 풍기광복단 참여한 이는 양제안梁濟安·강순필姜順必·조용필趙鏞弼 등이다. 양제안은 1851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병술兵術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양제안은 1894년 충북 진천에서 허문숙許文叔·조백희趙伯熙 등과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했고, 경북 상주·선산 지역에서 봉기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양제안은 봉기에 실패하자 곧바로 김산의진에 참여했다. 김산의진은 경북 김천·상주·선산·성주 등지의 의병들이 연합해 조직한 의진이었다. 양제안은 진천에서 봉기를 계획할 때 상주·선산 지역의 유생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봉기한 김산의진

32 조동걸, 위의 논문, 263~264쪽.

에 중군장으로 참여했다.<sup>33</sup> 양제안은 김산의진이 실패한 후 산남의진에 참여했다. 그는 김산의진이 실패한 후 경북 영일군 죽장면 두마리<sup>斗麻里</sup>에서 은거했다.<sup>34</sup> 양제안이 은거했던 두마리는 산남의진이 활동했던 보현산 인근 산촌이었다. 따라서 김산의진에 참여했던 양제안도 자연스럽게 산남의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양제안은 풍기광복단을 조직한 채기중과 사돈간이다. 따라서 양제안의 풍기광복단 참여는 채기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강순필·조용필이 풍기광복단에 참여하는 계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이들이 주로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순필은 이강년의진의 참모였으며 조용필도 이강년의진 출신으로 경북 예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이들이 북벽주의 계열의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순필은 최옥영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참여해 1914년 근북면사무소에서 자금을 탈취했으며, 1915년 7월 15일(음) 대구에서 조직되는 광복회에 참여했다. 조용필도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후 광복회에 참여했다.

33 신용하, 「許蕤의 의병활동」,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문화과학지성사, 1980), 57쪽; 권대웅, 「왕산 허위의 전개의병전쟁」, 『왕산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구미시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82쪽.

34 양제안은 김산의진이 실패한 후 영일군 죽장면 두마리에 은거하던 중 1906년 충남 홍성에서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했다. 양제안은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한 후 의진을 정비하던 중 두마로 돌아왔다(오세창, 「碧壽 梁濟安의 抗日救國運動」,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1990), 276~277쪽).

#### 4) 광복회

광복회는 7월 15일(음) 박상진(朴尙鎭)이 중심이 되어 대구 달성공원에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광복회는 의병과 계몽운동계열이 연합해 조직했다. 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무력이 준비되면 일제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로 광복회에 참여한 이는 강순필·권영만(權寧萬)·우재룡(禹在龍)·조용필 등이다. 이들 중 대표적 인물은 우재룡과 권영만이다. 우재룡은 대구진위대 출신으로 산남의진에 참여했다.<sup>35</sup> 그가 산남의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대구 감영에서 근무하던 중 산남의병장 정용기(鄭鏞基)가 대구감영에 수감되었고, 이때 정용기로부터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었다.<sup>36</sup> 우재룡은 군대가 해산 당하자 동지 10여 명과 함께 산남의진에 참여해 연습장·선봉장을 맡아 일본군과 치열한 항전을 펼쳤다.<sup>37</sup> 우재룡은 산남의병장 정환직(鄭煥直)이 체포된 후 최세윤(崔世允)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했다. 그는 영천 서부지역, 즉 팔공산 일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동화사(桐華寺)를 중심으로 항일유격전을 벌이던 중 체포되어 대구지방법판소에서 ‘종신유형(終身流刑)’을 선고받았다.<sup>38</sup>

35 「張承遠을 銃殺한 光復會員 禹利見」, 『동아일보』 1921년 6월 11일자.

36 우재룡 구술, 『白山實記』.

37 權寧培, 「山南義陣(1906~1908)의 組織과 活動」, 『역사교육논집』 16(역사교육학회, 1991), 142-151쪽.

38 「禹敬玉·金道泰 判決文」(1908년 9월 14일, 대구지방법판소); 權寧培, 위의 논문, 158쪽.

우재룡은 박상진·권영만 등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했다. 우재룡의 광복회 참여는 박상진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우재룡을 박상진에게 소개한 이는 산남의진에서 함께 활동한 양제안이었다. 박상진은 허위의 제자였고, 양제안은 허위와 함께 김산의진에서 활동한 동지였다. 양제안은 김산의진의 중군장이었고, 허위는 참모였다.<sup>39</sup> 양제안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에도 만주를 오가면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었고, 박상진도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만주·상해·북경 등을 여행하고 있었다. 이때 양제안은 만주에서 박상진을 만났고, 우재룡과 박상진을 연결했던 것이다. 우재룡은 경북 풍기에서 박상진을 만났다. 박상진이 만남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재룡은 박상진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토론을 한 후 곧바로 동지로 여겼다. 박상진과는 짧은 만남이었으나 우재룡은 그를 크게 신뢰했다. 우재룡은 박상진과 ‘경론을 토론하고 간담(肝膽)이 상조(相照)할 정도로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독립운동을 함께할 동지로 여겼다.<sup>40</sup> 박상진이 허위의 제자라는 점도 우재룡에게 큰 믿음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는 산남의진에 2만냥의 군자금을 지원했다.<sup>41</sup> 또한 허위가 13도창의군에서 추진했던 서울진공작전은 산남의진의 봉기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우재룡은 허위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제자인 박상진과 쉽게

39 신용하, 앞의 논문, 57쪽; 권대웅, 앞의 논문, 2005, 82쪽.

40 박경중, 「固軒實記 畧抄」, 김희곤 편, 『박상진자료집』(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366쪽.

41 『旺山許蔦先生學義事實大略』(『독립운동사자료집』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240쪽.



동지적 결합을 했던 것이다. 허위는 김산의진과 13도창의군의 의병장이었고, 박상진은 그의 제자였다. 박상진은 의병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허위의 사상을 계승해 무력항쟁을 통해 조국을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재룡은 무력항쟁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념으로 대한제국 군대에 들어갔고, 의병전쟁에 참여했다.<sup>42</sup> 따라서 무력항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자는 생각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던 박상진과 동지적 결합을 했던 것이다.

우재룡은 박상진과 만난 후 동지구합에 나섰다.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우재룡은 왜관에 거주할 때 2~3회, 녹동에 거주할 때 5~6회 만주를 왕래했다.<sup>43</sup> 경주 녹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가 1914년 11월(음)이었으므로, 녹동으로 이사하기 전부터 만주를 오가며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우재룡이 활동한 지역은 서간도지역이었다. 우재룡은 만주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다. 그런데도 만주 출입이 잦았던 것은 박상진과의 관계 때문이다. 박상진은 국외를 여행하던 중 경학사를 방문하고 이상룡과 김동삼을 만났다.<sup>44</sup> 이상룡·김동삼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위와 김대락 집안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상룡은 김대락의 매제(妹弟)였다. 박상진은

42 우재룡 구술, 앞의 책.

43 「우리건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국사편찬위원회, 1998), 236쪽.

44 조동걸, 앞의 논문, 266쪽; 박중훈, 「고헌 박상진의 생애와 항일투쟁활동」, 『국학연구』 6(국학연구소, 2001), 87쪽.

1918년 일제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안동의 이중업李中業 집에서 은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중업은 이상룡과 동서지간同壻之間이었다. 이중업의 장자인 이동흙李東欽이 1918년 4월 광복회 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될 정도로 박상진은 김대락·이상룡·이중업 집안 과도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45</sup>

권영만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광복회 결성 이전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1914년 진보향교 『유안儒案』에 권영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유림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권영만은 3대가 의병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47</sup> 그가 진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것을 보면 그의 의병경력 은 진보의진眞寶義陣이 아니었나 생각된다.<sup>48</sup> 진보의진은 1896년 7월 허위의 형 허훈許薰이 결성한 의진이다. 허훈은 을미의병 해산 후 아우 허위허겸과 함께 진보의 흥구에서 은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6년 안동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의병이 거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향인 경북 선산으로 돌아와 있던 중 안동의진의 권세연權世淵으로부터 창의 를 독려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허훈 형제들은 창의를 결심하고 허훈은 진보에서, 허위는 김산에서 창의했다.<sup>49</sup> 권영만은 당시 진

45 김희곤, 「민족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 김락의 삶」, 『민족을 위해 살다간 안동의 근대인물』(안동청년도유회, 2003), 468~470쪽.

46 심상훈, 「1910년대 독립운동」, 김희곤 외, 『청송의 독립운동사』(청송군, 2004), 159~160쪽.

47 조동걸, 앞의 논문, 272쪽.

48 「권영만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국사편찬위원회, 1998), 258쪽.

49 권대웅·김희곤, 「왕산 문중의 항일독립운동」, 『왕산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구미사·안동대학교 박물관, 2005), 194쪽.

보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의진이 결성되자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만은 1914년부터 박상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sup>50</sup> 따라서 권영만의 광복회 참여는 진보의진을 함께 한 허위 문중과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지휘장을 맡아 광복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다.<sup>51</sup>

강순필조용필은 이강년의진 출신으로 광복회에 참여했다. 강순필은 광복회의 친일파처단에 참여했다. 광복회는 친일세력에게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전라도의 서도현(徐道賢)·양재학(梁在學), 경상도의 장승원(張承遠), 충청도의 박용하(朴容夏) 등을 처단했다. 강순필은 장승원 처단에 참여했다. 장승원은 한말 허위 추천으로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장승원은 허위가 의병을 봉기하면서 자금을 지원했으나 거절했다. 의병봉기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밀고하기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장승원은 조선왕실의 재산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왜관의 김효현(金堯賢)의 처를 구타해 사망시키는 등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친일인물이었다. 강순필은 1917년 11월 10일(음력 9월 23일) 채기중·유창순(庾昌淳)·임봉주(林鳳柱)와 함께 장승원 처단에 참여했다. 이들은 장승원을 처단한 후 그의 집과 마을 어귀에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뜻이니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日維光復 天人是符 聲此大罪 戒我同胞], 경계하는 이 광복회원[聲戒人 光復會員]’

50 「권영만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국사편찬위원회, 1998), 259쪽.

51 우재룡과 권영만의 광복회 활동은 이성우 논문, 『광복회연구』(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형선고문을 붙이고 돌아왔다. 광복회의 장승원 처단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였다.

조용필은 군자금 모집에 참여했다. 군자금 모집은 광복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군대를 양성해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복회의 군자금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광복회원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현금수송마차를 공격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했다. 일본인 소유의 광산을 공격하거나 중국지폐를 위조해 정화(正貨)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연금 모집이었다. 전국의 자산가들에게 의연금을 요청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광복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의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자산가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애국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었다. 전국의 광복회원들이 지역의 자산가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산가들에게 광복회 명의로 통고문을 발송하는 것이었다. 조용필은 경상도 지역에 발송한 「경고문」 발송에 참여했다. 조용필은 1917년 10월 채기중 유창순·윤창하(尹昌夏) 등과 함께 「경고문」을 작성했으며,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경북 함창·상주 일대에서 경북지역 자산가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했다.<sup>52</sup>

52 김희곤 편, 『박상진자료집』(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39-55-67쪽.

## 2. 1920년대 초 국내독립운동단체의 조직

### 1) 주비단

주비단은 1920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와 만주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sup>53</sup> 주비단에는 광복회에서 활동한 우재룡과 권영만이 참여했다. 우재룡은 1918년 일제에 의해 광복회가 와해될 때 만주로 망명했다. 그는 1919년 3.1운동 후 국내로 돌아와 1919년 6월부터 은거하고 있던 권영만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우재룡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곳은 충남 논산이었다. 그는 논산에서 이재환(李載煥)·소진형(蘇鎭亨)·정인석(鄭寅奭) 등과 함께 논산 일대에서 자금을 모집했다. 자금모집 방법은 광복회의 자금모집 방법과 동일했다. 논산지역의 부호들을 조사하고, 통고문을 보낸 후 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우재룡은 당시 광복회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논산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면서도 자신을 ‘광복회원’이라 했으며, 그와 함께 활동하던 이들도 ‘광복회원’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우재룡은 일제에 의해 와해된 광복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광복회원들이 풀려난 후 다시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광복회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귀국한 후 옥중에 있는 총사령 박상진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sup>54</sup>

53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성우 논문,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참조.

54 「朴尙鎭差入關係」, 『동아일보』 1922년 3월 27일자.

우재룡은 서울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도모했다. 우재룡은 임시정부와 연계를 추진하면서 의열투쟁단체 조직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1920년 2월 한훈(韓煥)·박문용(朴文鎔) 등과 함께 조선독립군사령부(일명 광복단결사대) 조직을 논의했다. 조선독립군사령부를 조직해 국내에서 인재를 선발해 국외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국내에서는 일본 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했다.<sup>55</sup> 이러한 구상은 광복회 방략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우재룡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1920년 2월(음) 장응규(張應圭)를 임시정부에 파견했다. 장응규는 임시정부로부터 경성에서 주비단을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했다.<sup>56</sup> 따라서 우재룡은 1920년 6월 서울 경신학교 교정에서 주비단을 조직했다.

우재룡은 국내로 돌아온 후 논산지역에 활동하면서 경북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경북지역 책임은 권영만이 맡았다. 권영만은 1919년 9월(음) 경북 영천에서 양한위(梁漢緯)·권태일(權泰一) 등과 활동을 시작했다. 양한위는 우재룡과 함께 산남의진에서 활동했던 양제안의 아들이다. 특히 우재룡은 만주로 망명하기 전 양한위의 집에서 은신했고, 우재룡이 만주로 망명하는데 김재서라는 위조증명서를 제공해 망명을 도왔던 이였다. 따라서 우재룡과는 밀접한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권영만이 양한위와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권영만·양한위·권태일은 독립신문과 경교문 등을 대구에

55 장석홍,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 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17(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59쪽.

56 「우리건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국사편찬위원회, 1998), 200쪽.

서 허병율(許秉律·조선규(趙善奎) 등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양한위는 1920년 1월 허병율이 제공한 8천원과 권태일이 모금한 180원을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금 모집에 머물지 않고 의열투쟁도 준비했다. 1920년 6월, 권영만은 양한위·권태일과 함께 일제관리와 친일파 처단을 위해 폭탄을 구입했다.<sup>57</sup>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 미즈노렌타로(水野鍊太郎)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영만의 의열투쟁은 사전에 발각되어 양한위·조기홍(趙氣虹·김영우(金永佑·조선규(趙善奎·오진문(吳進文·김원식(金元植) 등과 함께 체포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58</sup>

권영만양한위의 활동은 광복회 부활과 관련해 주목된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3.1운동 후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활동지역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권영만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을 담당했고, 우재룡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재룡은 광복회를 부활시키면서 전국에 거점을 설치하고자 했다. 우재룡은 광복회가 전국에 거점을 설치했던 것처럼 1920년대 초 전국 8도에 책임자를 두어 연락거점을 설치하고자 했다.<sup>59</sup> 광복회의 거점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이었다. 따라서 우재룡은 광복회를 부활하면서 권영만에게 경북지역 책임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영만이 체포됨으로써 경북지역 조직이 발각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57 「獨立運動團 過激手段을 計劃코저」, 『매일신보』 1920년 7월 20일자;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앞의 책, 461~462쪽.

58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앞의 책, 461~462쪽.

59 우재룡 구술, 앞의 책, 37쪽.

일제는 권영만을 광복회 잔당 정도로 파악했을 뿐 우재룡과의 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sup>60</sup>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준비단원들이 체포되면서 우재룡은 1921년 4월 군산에서 체포되고 말았다.<sup>61</sup>

## 2)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이하 의용단)은 1920년 9월 결성되어 1922년 12월까지 활동한 비밀단체였다.<sup>62</sup> 의용단은 서로군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주요 구성원 대부분이 경북지역 출신이었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로 의용단에 참여한 이는 신태식申泰植(이강년의진)·김규헌金奎憲(안동의진)·서상업徐相業(이강년의진)·한양이韓良履(이강년의진)·김용환金龍煥(이강년의진, 김상태의진)·김병동金秉東(이명: 김병동金炳東, 이강년의진)·김회문金會文(이명: 김현동金賢東, 김상태의진)·허달許達(이강년의진) 등이다.

신태식은 문경 출신으로 1907년 8월 이인영의 격문을 받고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이강년의진과 연합해 갈평전투를 비롯해 죽령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소모후군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피체되었다.<sup>63</sup> 그는 1918년 1월 풀려났으며 1920년

60 「대구에서 체포된 중대범인은 권영만」, 『동아일보』 1920년 7월 2일자.

61 「장승원을 총살한 광복회원 우리건」, 『동아일보』 1921년 6월 11일자.

62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8(안동사학회, 2001) 참조. 조선독립후원의용단의 조직과 활동은 심상훈 논문 참조.



9월, 경북 김천에서 김찬규(金燦奎)·이응수(李應洙)와 함께 의용단을 조직했다. 신태식은 경북단장, 김찬규는 경남단장, 이응수는 경북지역 총무를 맡아 경북 안동·영천·군위·영일·영덕 등을 중심으로 단원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김규현은 안동 출신으로 김성일(金誠一) 후손이다. 1896년 안동의진에 참여했으며 안동의진 해산 후에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갈평·마고상·제천·평창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한량은 예천 출신으로 1905년 이강년의진에 종사관으로 참여했으며, 원주단양·제천·문경 등에서 활동했다. 1908년 청풍 까치성 전투에서 패한 후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상업은 문경 출신으로 1907년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문경·제천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한량의 권유를 받고 의용단에 가입했다. 김용환은 이강년의진과 김상태의진에서 활동했고, 김회문은 김상태의진에서 활동한 후 의용단에 참여했다.<sup>64</sup> 이밖에 김병동과 허달은 이강년의진의 좌중사부에 참여해 활동했다.<sup>65</sup>

이처럼 의용단은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이는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국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1910년 7월(음) 작성된 「통문(通文)」과 「소모격문(召募檄文)」이 주목된다.<sup>66</sup> 통문과 격문은 1910년

6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333~334쪽.

64 심상훈, 앞의 논문, 2001, 249~257쪽.

65 『雲南先生倡義日錄』, 앞의 책, 304쪽.

66 「通文」·「召募檄文」(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장). 당시 통문과 격문에 등지인으

한일강제병합 직후 작성된 것이다. 작성자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통문과 격문작성에 참여한 동지인(同志人) 30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이 직접 통문과 격문 작성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동지인 30명 중 이규해(李圭海)·이승재(李承宰)·이지선(李芝璇)(이명:이지원(李芝元))·서상업(安在極)·극(女在極)·한양아(허달은)·이강년의진 출신이었고<sup>67</sup> 이승재·이극재·이명재는 이강년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통문과 격문 작성은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따라서 의용단을 조직한 이들은 이미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부터 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의용단에 참여한 이응수와 이종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응수와 이종국도 서상업(安在極)·한양아(허달 등과 함께 의병봉기를 추진했었다.<sup>69</sup> 이응수와 이종국은 이때부터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응수의 부친은 1907년 소위 정미조약에 항거해 투옥 중 순국한 지사였고, 이강년의병장의 친족이었다.<sup>70</sup> 따라서

---

로 수록된 이는 姜來永·姜炳修·姜炳旭·姜炳裕·金斗活·金喆相·盧炳大·柳時淵·李康夏·李兢宰·李圭海·李起夏·李明宰·李相協·李成宰·李承宰·李永宰·李容晔·李殷和·李應洙·李鍾國·李芝元·徐相業·安在極·張性德·張翰文·丁喜燮·周九相·韓良履·許達이다. 자료에는 총 31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金斗活이 두 번 수록되어 있어 총 30명이 된다.

67 『雲南先生倡義日錄』, 앞의 책, 290-299-303-304-305쪽.

68 당시 통문과 격문작성자에게는 김산의진에서 활동한 李起夏도 포함되어 있다. 이기하가 통문과 격문작성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기하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이러한 관계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조직에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기하 이기상 형제는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조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69 「通文」, 「召募檄文」(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장).

70 「慶北重大陰謀 犯罪內容大略(下)」, 『매일신보』 1922년 12월 22일자;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앞의 책, 332쪽. 이응수의 부친은 李建奭으로 알려져 있다(심상훈,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의용단은 김찬수·신택·삭·이응수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였으며, 경북지역이 중심이었다. 신태식은 경북단장, 이응수는 경북지역 총무국장이었다. 이들은 이강년의진과 관계가 깊었다. 따라서 의용단은 이강년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가졌던 것이다.

의용단의 또다른 특징은 1915년 조직된 광복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의용단에는 양한위(梁漢緯)·이정희(李庭禧)·박호진(朴琥鎭)·박경중(朴敬重)이 참여했다.<sup>71</sup> 양한위는 우재룡을 박상진에게 소개해 준 양제안의 아들이다. 박호진은 박상진의 동생이고, 박경중은 박상진의 아들이자 이정희의 사위였다. 즉 이정희는 광복회를 조직한 박상진과는 사돈간이다. 의용단의 자금모집은 광복회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의연금 모집 대상자를 조사하고 통고문을 발송한 후 단원들이 찾아가 수령하는 형식이었다. 통고문에는 의용단의 단체명을 밝히고, 자금 요구액을 기입하고, 경고문구와 수신대상자를 명시했다. 이러한 방법은 광복회 의연금 모집과 같은 것이었으며, 우재룡과 권영만이 주비단을 조직하며 자금을 모집하던 방법이었다. 주비단이 광복회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은 광복회원인 우재룡과 권영만이 광복회원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의용단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양한위·이정희·박호진·박경중 등 광복회와 관련이 있는 이들의 영향이 아

앞의 논문, 254쪽). 그러나 『매일신보』와 『고등경찰요사』에는 보안회 부회장을 역임한 李源弼로 기록되어 있다.

71 심상훈, 위의 논문, 264쪽;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위의 책, 332쪽.

닌가 생각된다. 특히 양한위는 의용단 가입 직전 권영만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광복회의 의연금 모집 방법이 의용단에 그대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구의 계림여관鷄林旅館이 주목된다. 계림鷄林은 경주를 말하는 것으로 박호진이 대구로 이감된 박상진의 옥바라지를 위해 1920년경 설립한 여관이었으며, 당시에도 박호진이 경영하고 있었다.<sup>72</sup> 의용단은 자금수납처를 이정화박경중으로 정하기도 했다.<sup>73</sup> 이를 통해 보면 의용단의 자금모집 중심에는 계림여관이 있었고 계림여관은 의용단의 활동거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용단원들이 일제에 피체된 곳도 계림여관이었다. 의용단원 이태기李太基·김사묵金思默·장탁원張鐸遠·곽방郭邦은 1922년 11월 28일 계림여관에 머물던 중 일제에 피체되었고, 이후 이응수를 비롯해 의용단원들이 피체되었다. 일제는 박상진 동생이 운영하고 광복회와 관련이 있던 이정희 출입이 잦은 계림여관을 주목했고, 이곳에서 의용단원들을 체포하고 단서를 확보했던 것이다.

72 「慶北重大陰謀 犯罪內容大略(上)」, 『매일신보』 1922년 12월 21일자.

73 심상훈, 앞의 논문, 263쪽.

#### 4. 맺음말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 활동을 1910~2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sup>74</sup>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풍기광복단·민단조합·광복회에 참여했으며, 1920년대 초 주비단과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 참여했다. 이들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강년의진·김산의진·산남의진과 왕산 허위의 의병활동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이 1910년대 가장 먼저 조직한 단체는 독립의군부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9월 서울에서 곽한일·이식과 같은 재야유생과 이명상이인순·전용규 등 전직관료출신들이 조직했다. 이들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경상도지역에는 최옥영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최옥영이 조직책임을 맡은 것은 그가 이강년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군자장을 맡았으며 1913년 3월(음) 독립의군부 사령서를 받고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 따라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에는 이강년의 조카 이식재, 이강년의 참모 강순필, 단식 순국한 김순흙의 아들 김낙문 등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독립의군부

---

74 이 밖에 姜炳旭(이강년의진)은 1915년 소백산 일대, 金命立(이강년의진)은 1910년 경북 봉화일대, 柳命鎬(권세영, 유시연의진) 1912년 안동일대에서 의병의 재기와 지원을 위한 자금 모집활동을 벌였으며, 李圭洪(이강년의진)은 1913년 만주로 망명한 이상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또한 柳淵博(권세연의진)과 李中業(선성의진)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직에는 왕산 허위의 의병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허위는 1896년 김산의진에 참여했고, 1907년 13도창의군에 참여했다. 따라서 그와 함께 의병전쟁을 벌였던 여영조·이기상·정철화 등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특히 13도창의군에서 허위 비서로 참여했던 이기상과의 관계로 이인영의병장의 동생인 이은영, 이인영의진의 우군장 김창식, 후군장을 역임한 채상준 등도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상·이기영·이은영·정철화 등은 1914년 2월 독립의군부의 총대표 및 각군대표를 선정하는 등 독립의군부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단조합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이동하이·은영·김낙문·이식재 등이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나 단체명만 민단조합이라 했을뿐 독립의군부 활동을 벌였다. 민단조합이 조직된 후에도 ‘의군부’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독립의군부와 같이 칙명의 형식으로 사령서를 교부해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단조합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관계속에서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중 양제안·강순필·조용필은 풍기광복단에 참여했다. 양제안은 김산의진, 강순필과 조용필은 이강년의진 출신이었다. 특히 양제안은 김산의진을 함께한 허위와의 인연으로 산남의진 출신의 우재룡을 박상진에게 소개했고, 우재룡과 박상진은 1915년 8월 대구에서 광복회를 조직했다. 광복회에는 진보의진 출신의 권영만이 참여했으며, 이강년의진출신의 강순필과 조용필도 참여했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광복회 지휘장을 맡아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강순필과 조용필은 광복회 군자금 모집에 참여했다. 강순필은 광복회가 전개한 의열투쟁에도 참여했다.

광복회에 참여했던 우재룡과 권영만은 1920년대 준비단을 조직했다. 광복회는 1918년 1월부터 회원들이 피체되면서 조직이 크게 와해되었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피체를 피할 수 있었고, 1919년 3.1운동 후 광복회를 부활해 활동을 재개했다. 우재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920년 6월 준비단을 조직했고, 권영만은 경북지역에서 자금모집과 의열투쟁을 추진했다.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신태사서상업·한양아·김용환·김병동·허달은 1920년 9월 의용단을 조직해 국외독립운동단체 지원활동을 벌였다. 의용단에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과 사돈인 이정희, 동생 박호진, 아들 박경중도 참여하고 있었다. 의용단과 광복회와의 연관성이 찾아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의용단도 자금모집시에 광복회가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국내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비밀단체들이 주도했다. 국내독립운동단체들은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었다. 독립의군부·풍기광복단·민단조합은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였고, 광복회는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계열이 통합된 단체였다. 그런데 독립의군부를 제외하면 이들 단체들은 모두 경북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이처럼 경북지역에서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가 조직되는 것은 한말 경북지역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 풍기광복단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이들과 허위와 함께 의병전쟁을 벌였던 이들이 중심이었다. 광복회도 왕산 허위의 제자인 박상진과 산남의진과 진보의진에 참여한 우재룡과 권영

만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이들이 광복회를 조직한 배경에도 경북 지역에서 전개한 의병전쟁과 허위와 관계가 깊었다.

• 2018. 10. 10 : 논문투고

• 2018. 10. 23 ~ 11. 12 : 심사

• 2018. 11. 19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 199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국사편찬위원회, 197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국사편찬위원회, 1971.
-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 양한위, 「양백도공제안실기」.
- 우재룡 구술, 『백산실기』.
- 임병찬, 『돈헌유고』.
-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みすず書房, 1977.
-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한국학보』 74, 일지사, 1994.
- \_\_\_\_\_, 「왕산 허위의 전개의병전쟁」, 『왕산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구미시·안동대학교 박물관, 2005.
- \_\_\_\_\_,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_\_\_\_\_, 「한말일제강점 초기 의병계열의 민족운동」, 『한말 경북지역 의병사 연구』, 안동독립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2009.
- \_\_\_\_\_, 「경북 서북부지역의 김산의진 결성과 활동」,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 권대웅·김희곤, 「왕산 문중의 항일독립운동」, 『왕산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구미시·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 권영배, 「산남의진(1906~1908)의 조직과 활동」,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1991.
- 김희곤, 「경북지역 의병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 』, 경인문화사, 2015.
- 신용하, 「허위의 의병활동」,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80.
- 심상훈, 「1910년대 독립운동」, 『청송의 독립운동사』, 청송군, 2004.
- \_\_\_\_\_,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8, 안동사학회, 2001.
-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 역사학회, 2014.
- \_\_\_\_\_, 『광복회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Abstract

## Activities of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in Gyeongbuk Area

— Domestic Groups for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1910~20

Lee, Sung-woo  
Chungnam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activities of domestic groups of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1910 ~1920. Many armies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cluding the Andonguijin, the Sindolseokuijin, and the Sannamuijin worked in Gyeongbuk area. After the Japan's annexation of Chosun in 1910, members of the army participated in domestic secret organizations and their career in the army became the reason to participate in domestic groups of independence movement. Gyeongbuk area is the typical example. During the 1910s, domestic groups of independence movement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rmies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The former are the Doklibuikunbu, the Pungkigwangbokdan and the Mindanjohap, and the Gangbokhoe fell under the two categories.

Except the Doklibuikunbu, all of them were organized in Gyeongbuk area. The reason was that members of the army in

Gyeongbuk area played key roles in organizing the groups. The Gangbokhoe was organized by Park, Sang Jin of the Sannamuijin, Woo, Jae Lyong and Kwon, Young Man of the Jinbouijin. The nature of the group succeeded to the Jubidan and Chosun Doklibhuwondan, and became the impetus for the anti~Japanese struggle. Like this, members of the army in Gyeongbuk area influenced the activity and organization of the domestic groups of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1910s, and was acting as liaison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1920s.

Key words

: Doklibuikunbu, Mindanjohap, Pungkigwangbokdan, Gangbokhoe, Jubidan, ChosunDoklibhuwondan.